

News

당국 채권발행·예금금리 인상 자제 요청에…은행 “돈 어디서 구하나”

서울경제

예대금리차 축소 요구는 계속, "대출금리만 내리라는 말" 불만
대출 필요한 기업 수요는 넘치지만 은행 유동성 문제 불거질 수도

오래 예치할수록 이자가 적다고?... 은행들, 장기예금 이자율 산정 고심

파이낸셜뉴스

3년만기 금리 1년보다 0.54%p ↓, 금리인상 후반부에 이자 인상 부담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점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장기예금 상품의 이자를 성급히 높였다가 조달비용만 높아질 수 있음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3분기 인터넷은행 중저신용 대출 비중 ↑

디지털타임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3사의 3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일제히 상승
올해 말까지 각 인터넷 은행이 설정한 비중 목표치는 카카오·케이뱅크가 25%, 토스뱅크는 42%였는데, 3사 모두 근접

여전사 '자금창구' 오토론도 막혔다

이데일리

자동차 대출(오토론) 유동화채권 발행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자금조달 창구가 막힘
채무불이행 증가로 인한 오토론 부실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여전사를 둘러싼 우려가 증폭되는 양상

‘제2 건보’ 실손보험, 또 10% 넘게 오르나

디지털타임스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전망
실손보험료를 올해 14.2% 올렸지만,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설명

이번엔 신한…또 깨진 '유사암 협정'에 보험사 불멘소리

대한금융신문

보험업계는 신한라이프의 암보험이 금감원과 보험사간 신사협정을 깨는 '꼼수 상품'이라고 지적
신한라이프는 유사암의 분류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증권사 신용금리 또 줄줄이 오른다

대한경제

12월 첫째주부터 신용금리를 인상한다고 예고한 증권사는 11곳에 달함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신용금리 인상에 들어가는 곳은 9곳(다올·메리츠·부국·신한·유진·이베스트·한화·BNK·SK)

만기 6개월에 금리 6~7%…ELB 상품 봇물

서울경제

이달 증권사들의 ELB 발행 규모는 1조 360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481억 원)의 약 4배 수준
고금리 시대에 확정금리형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의 수요를 잡기 위해 6~7%대 ELB 상품을 잇따라 내놓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